

## 시진핑과 모디, 조코위 중국, 인도, 인니의 정치 경제 개혁 Asia's Giants under New Management

가장 중요한 점은 세 사람 모두 실용주의자라는 것이다.  
앞으로 세 국가의 지도부는 모두 국가 발전 의지를 발휘해  
자국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세 나라 중 한 곳에 산다. 새 지도자 선출, 신임 지도자의 첫 결단 등 세 나라 모두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나렌드라 모디 후보가 인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조코 위도도(조코위) 후보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역 경제 성장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그럴 경우 아시아는 전 세계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의 정상에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후 1년 동안 강력하게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그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및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비롯해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 등 잠재적 라이벌을 제거했다.

중국처럼 크고 복잡한 국가에서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시진핑 주석의 업적은 여간 놀랍지 않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도 그 정도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그는 일원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가 소홀히 해 비판받았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실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독점해체, 시장규제 개선, 투명성 강화, 세계개혁 등 경제적 기회 균등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려면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서방세계는 대체적으로 시 주석의 시장 중심 개혁 전략에 찬성하지만 중국공산당에 대한 그의 현

신에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진정 효과적인 개혁이라면 옛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 민주주의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 이후 소련이 붕괴한 데서 교훈을 얻은 시 주석은 변화와 안정 사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번영을 도모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을 중요시한다. 실제로 현 중국 지도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개혁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다. 현 지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공이 개방경제와 자유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직접적 산물임을 잘 알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하에서도 이러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개혁성향의 민족주의자는 올 5월 인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차기 총리로 떠오른 나렌드라 모디다. 모디의 친기업 정책은 이번 선거의 주요 어젠다였다. 인도 국민은 모디의 정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디는 구자라트주 추총리 시절 외국인 투자 활성화, 24시간 전기 공급, 도로 건설 및 지능형 도시 계획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구자라


트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리관유 세계도시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역사가 모디의 발목을 잡았다.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002년 구자라트 반무슬림 폭동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모디의 개인적 잘못에 대한 혐의는 벗겨졌지만 비극적 역사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어 모디가 힌두민족주의의 기반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슬림의 표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비극적 역사도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모디를 막지 못했다. 인도에는 절보다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첫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고, 민족주의 성 시험대가 될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가장 위험한 정치적 행보를 취한 것이다.

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가 올 7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비슷한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승리하더라도 투쟁민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조코위는 노련하고 설득력이 뛰어난 정치가이며, 지지도가 높지만 대중융합적이지는 않다. 자카르타 슬럼 지역 거주자들을 이주하도록 설득해 도시개발을 추진한 데서 드러나듯 조코위는 자신의 장점을 기반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조코위의 리더십 덕분에 16년간 중단되었던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재개됐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처럼 조코위 역시 주로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가구 제조 및 수출업자 출신이라는 배경이 큰 자산으로 작용해 조코위는 전임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이 갖추지 못했던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가적 안목을 지닌 조코위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려면 물류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 사람 모두 실용주의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경제성장 과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반대세력과 타협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세 국가의 지도부는 모두 국가 발전 의지를 발휘해 자국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전 세계 3분의 1 인구의 삶이 개선된다면 나머지 우리들에게도 물론 이득이다. 

번역 윤소진 포스코경영연구소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 키쇼어 마부바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이자 『The Great Convergence: Asia, the West, and the Logic of One World』의 저자다.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Prospect)』에서 선정한 ‘2014 올해의 세계 사상가 50인’ 중 한 명이다.